

2026년 7월 22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반도체 수출에서 성장을 상향까지

7월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은 최근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우려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5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하며 7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하루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평균 수출도 62.9% 증가해 수출 증가세는 더욱 견조했다.

특히 반도체가 수출 호조를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은 22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0.6% 급증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3%로 지난해보다 18.4%p 확대됐다. 컴퓨터 주변기기(231.9%), 선박(70.8%), 무선통신기기(65.9%) 등 첨단산업 중심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내 수출 경쟁력이 여전히 견조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주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일부 메모리 가격 조정 가능성 등을 반영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현시점에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보다는 견조한 펀더멘탈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별 수출도 중국(94.1%), 베트남(82.4%), 대만(41.8%), 미국(39.6%), 유럽연합(30.3%)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주요 교역국의 수입 수요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입 역시 반도체(54.9%), 반도체 제조장비(56.9%), 원유(27.5%), 가스(27.9%)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수입 확대는 향후 설비투자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 경기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이러한 흐름은 이번 주 발표되는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에서도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1분기 높은 기저효과로 전기 대비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3%를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시장의 관심은 분기 성장률의 둔화 여부보다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이 추가로 상향 조정될지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Macro Snapshot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